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양방향 투자자문 플랫폼

한국투자증권은 차별화된 투자자문과 일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투자자문사를 직접 연결하는 '양방향 투자자문 플랫폼'을 오픈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투자자문 플랫폼은 고객 전용 '트루 어드바이저'와 투자자문사 전용 '이프랜드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편리한 자문상품비교선택 ▲자문적용 포트폴리오 설계 ▲자문계약 성과분석 ▲일임상품 1대1 상담 서비스를, 투자자문사에게는 ▲강화된 해외주식 일임운용기능 ▲복수계좌 일괄 자문서비스 ▲자문·일임고객관리기능 등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혁신기업에 선발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ID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8'에서 '옴니 익스피어리언스 이노베이터(Omni Experience innovator)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수상은 '아만다의 글로벌투자여행 서비스'가 쉽고 빠른 글로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혁신성을 높게 평가 받은 결과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투자 캐릭터인 '아만다'가 해외여행을 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 제품 등 해외주식 투자 정보를 초보자 눈높이로 제공해 종목 선택을 돕는 형식이다. 신한금융투자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관련 콘텐츠는 20-40세대의 호평을 받으며 각광받고 있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수익률 7% ELS 공모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코스피200(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공모한다.

'키움증권 제862회 ELS'는 KOSPI 200 주가지수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3년 스텝다운 ELS이다. 두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7%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두 개의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21%(연 7%)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낙인배리어는 60%이며, 모집한도는 5억원이다. 청약 마감은 10월 5일 오후 1시까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상장사 영업익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익 17.2조 수준
SK하이닉스는 6.6조원 예상
전체 증가율 괴리율 기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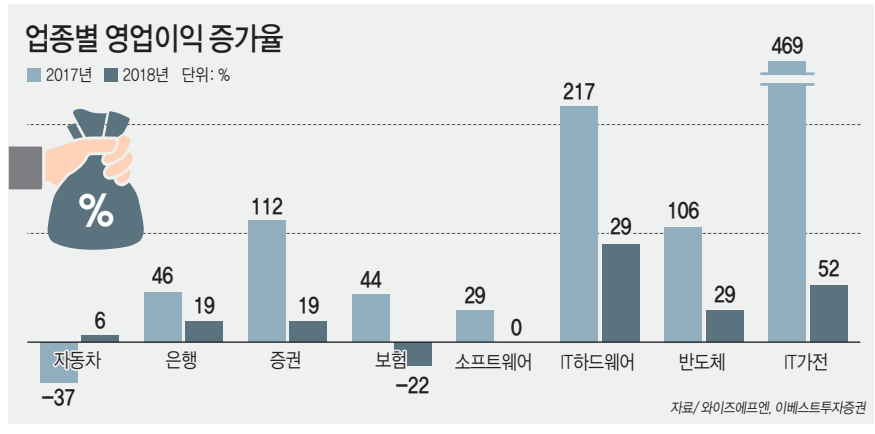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버팀목 '반도체의 힘'이 3분기 상장사의 성적 우려를 덜어줄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실적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매출 65조 2000억원에 영업이익 17조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6조 6000억원(노무라 증권 예상치)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6조6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이익 괴리율 10%를 적용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50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신통치 않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는 12.6%, 지난해 3분기 이익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괴리율 기준으로는 1.4%에 머문다.

특히 삼성전자를 빼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영업익은 18.5%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65조9800억원)에 다소 못 미치나 영업이익은 올 1분기에 써냈던 신기록(15조64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삼성전자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 장기화'다.



지난해 말부터 '다운턴'(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D램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낸드플래시도 평균판매단가(ASP)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가동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과 함께 올레드 패널 부문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 노무라는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매출액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영업이익 증가율 127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04.1%), 삼성SDI(229.1%), NHN엔터테인먼트(189.4%), 삼성전기(188.0%), 코스맥스(182.7%) 등도 장밋빛 실적이 예상된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559억원, -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한국은 수출주의 비중이 높아 기업이익은 환율, 수출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서 "특히 환율이 상승할 경우(원화 약세)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3분기 분기 평균환율은 증가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시장 움직임을 좌우하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세이고 시가총액이 큰 은행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반도체·은행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아직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멘텀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LH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비전선포

'창립 9주년' 임직원 실현의지 다져
핵심가치 조합 'WITH' 슬로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LH는 4일 경남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대강당에서 'LH 창립 9주년 New VISION(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8000여 명의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축사 영상을 통해 국민을 위한 LH의 더 큰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4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LH 창립 9주년 New VISION 선포식'에서 박상우 LH 사장(오른쪽 열 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전문가, 시민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국가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개선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H는 기존 비전을 '살기 좋은 국토, 행복한 주거 From(프롬) LH'에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로 새롭게 바꿨다. 국민을 중심으로 재편한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LH의 굳은 결의를 담은 것이다.

또 LH 임직원들은 4대 핵심가치인 ▲상생협력(Win-Win) ▲창의혁신(Innovation) ▲미래도약(Tomorrow) ▲사람중심(Human-Oriented)'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슬로건으로는 각 핵심가치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영어 단어 'WITH(위드)'와 비전을 결합해 만든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를 선정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

국토부, 3개 기관과 공동이행협약

국토교통부,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을 잡고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낸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5일 천안 두드림센터에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착수하고, 시업시행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천안의 원도심이던 옛 동남구청사 부지 일대는 지난 2005년 천안시청이 외곽 신도심으로 이전한 후 아파트·업무·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민자 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러다 이 일대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국토부·지자체·공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는 2021년까지 동남구청사, 지식산업센터 및 주상복합 아파트(451세대) 등으로 이뤄진 원도심 혁신거점으로 복합 재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발판 삼아 천안역세권 뉴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사업 참여 공기업인 LH·코레일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세 기관도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재생방안 등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12월 뉴딜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들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기관 별 역할과 시행사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사업 참여 기관들은 천안역세권 일대에 약 4900억원을 투자하고 약 3만3000㎡의 토지를 출자·매입하게 된다. /채신화 기자

평택 '맘스 스퀘어' 214개 점포 분양

Advertorial Corner

동문건설, 주변 산업단지 풍부
4500여 세대 아파트 중심 입지

동문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에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의 상업시설인 '맘스 스퀘어'를 분양한다. 4500여가구 매머드 아파트 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주변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교육특화 관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평택 맘스 스퀘어는 연면적 2만942㎡로 지하 1층~지상 5층 4개동 214개 점포로 구성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5개 블록 4567가구(1만3000여명)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인 중심상업시설이다. 3개 블록 2803가구는 2016년 분양됐고, 2019년 8월 입주한다.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평택 맘스 스퀘어

상업시설은 스트리트 형으로 저층 나열식 배열이 특징이다. 동삭교차로와 인접해 있으며 4개 동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굿모닝 평택맘 프로젝트'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특화 상업시설 구성이 눈길을 끈다.

동문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대치동 명문 학원타운' 유치를 위한 교육특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층별 계획은 1·2층 생활 밀착형 및 트렌드에 맞는 업종, 3층은 병원과 헬스&뷰티 시설 중심, 4~5층은 초·중·고교 전문 학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규성 기자 peace@